

## 일본의 국제화와 시민운동

이 시 재

### I. 서 론

일본의 시민운동은 참가규모나 자금, 정치적 영향력 등의 면에서 매우 약하다. 이를 시민사회의 미성숙과 연관시키는 사람도 있으나,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수많은 단체들이 축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단체들도 있으므로 단순히 규모나 정치적 영향력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시민운동은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불특정한 일반시민들의 사회운동을 의미하며,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과 같이 특정한 직능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추구운동과 정당의 지도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운동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시민운동이 이익지향적인지 아닌지는 간단하게 말할 수 없지만, 대체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혹은 운동의 결과가 자기개인에게는 불이익이 되더라도 인권, 환경, 자치, 해방 등의 비교적 넓은 의의를 지닌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지역의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주민운동 가운데서도 시민운동으로 발전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국지적 지역적 문제만을 위한 당사자 운동도 또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다루는 시민운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이다.

- (1)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 (2) 조직의 형태로서 피라미드형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형이 일반적이다.
- (3) 활동가는 비록 생활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가격의 수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정신에 입각하여 활동한다. 참가자는 시간, 노동, 돈을 제공하여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한다.
- (4) 따라서 시민운동을 통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sup>1</sup>

이 논문은 큰 주제로서 일본의 국제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시민운동 가운데 국제화, 개방화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혹은 그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킨다.

1 히타카 로쿠로(日高六郎)는 1960년대 초에 시민운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1) 무당무파(無黨無派)일 것.
- (2) 정치적 야심을 갖지 않을 것.
- (3) 24시간 활동가가 아니라 각자 직업을 가진 생활인으로 참가할 것.
- (4) 조직의 지령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비로' 참가할 것(Hitaka, 1973).

## II. 일본 시민운동의 배경

### 1. 시민운동의 전개

일본 시민운동의 시초를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아시오(足尾) 광독(鑛毒)사건에 대한 다나카 마사오(田中正造)의 저항운동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본의 시민운동은 1960년대 후반의 베트남전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대중운동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ベ平連, 베헤렌)에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민’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그것의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던 것도 1960년대 말이었다.

전후의 대중운동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이 주류를 이루어 전개되었으나, 부인운동, 문화운동, 지식인운동 등 다양한 운동이 가담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이른바 ‘역(逆) 코스’가 시작되어 일본의 전후민주주의와 평화헌법이 형해화하기 시작하자, 이것을 지키겠다는 공통의 목적으로 대중운동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혁신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지도 아래 전개된 대중운동으로서 ‘혁신국민운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1960년의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 연장을 반대하는 대중운동은 혁신국민운동의 정점이었다. 그러나 전후 일본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서 ‘혁신국민운동’에 가까이하면서, 혁신정당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립하여 행동하는 무수한 작은 집단이 생겨나게 되었다. 60년 안보투쟁에 있어서 쓰루미 슈스케(鶴見俊輔) 씨 등이 전개한 ‘소리 없는 소리의 모임’ 운동은 그것의 전형이다. 60년대 고도성장 가운데 시민운동은 ‘베헤렌’을 낳았고, 또한 환경운동, 복지요구의 주민운동에 불을 붙여, 60년대 말 혁신 자치체가 확산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시민, 주민운동은 특히 공해, 물가상승, 지역격차 등 경제성장의 폐해가 표면화한 1960년대 후반에 발달하였다.

일본의 사회운동, 시민운동은 노동조합운동, 혁신정당운동에 실망한 전후 민주주의의 ‘이상주의자’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 일본의 혁신세력은 전후 초기의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개혁에 꿈을 두었지만, 이른바 55년체제가 완성되고 공산당의 체제내 안주, 독선적인 지도체제의 확립에 실망하여 탈당, 출당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1960년의 미·일 안보투쟁에도 가담하였지만 역시 실패하고, 일본의 대중들이 고도성장의 파도를 타고 있을 때 그들은 운동을 떠났다. 그러나 이 세대는 이미 나이가 60을 넘어섰고, 운동의 주력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가령 일본 시민운동의 중심인물인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RC)의 지도자 M씨는 소년시절에 일본 군국주의를 경험하였으며 패전을 맞이하여, 전후 민주주의와 사회혁명을 꿈꾸던 좌익청년으로 성장하였다. 공산당에도 가입하였고, 동경대학(東京大學)에서 좌익운동에 전념하다가 체포, 구금되어 대학을 중퇴하였다. 그는 그러나 55년체제의 형성 이후 공산당 내의 관료제의 발달, 언론자유 박탈 등에 저항하다가 공산당에서 쫓겨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입시학원의 영어선생 등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으며, 1960년도의 안보투쟁에도 참가하였다. 일본의 ‘생활클럽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지도자인 I씨도 안보투쟁에서 패배한 후, 1968년경에 시민운동으로서 생활협동운동을 시작하였다.

전후 민주주의는 이와같이 일본 시민운동의 이념적 원점이었으며, 이것이 안보투쟁에서 베트남전 반대운동, 생활협동운동으로 1960년대 이후에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의 혁신적인 사회운동을 지도하는 세대층은 이와같이 ‘전후 혁신계’, ‘안보 세대’ 그리고 1960년대말의 학생운동세력인 이른바 ‘전공투’ 세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오늘날 일본 시민운동 지도자들의 주류는 1960년대 말의 전공투 세대가 이루고 있다.<sup>2</sup> 이들도 이제는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고민을 갖고 있다.

## 2. 시민운동의 사회적 환경

생활협동, 리사이클운동 등 약간의 예외적인 것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본의 시민운동은 작고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은 시민운동을 키울 만큼 시민사회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열대 우림을 지키는 회’(Japan Tropical Forest Action Network, JATAN)의 구로다 씨는 자금부족, 인력부족, 회원부족이 운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Kurota 증언, 1992, *Japanese Working for a Better World*). 지역수준의 시민운동(주민운동)은 성공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규모 운동은 성장하기 어려우며, 활동가의 부족으로 국제적인 운동은 커녕 전국 운동조차 전개하기는 어렵다. 일본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시민운동이 이와같이 빈약한 것은 정말 지구적인 문제라고 구로다 씨는 말하고 있다. 왜 일본의 시민운동은 어려운가?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로 일본의 시민들이 자기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적인 대의를 위해서 회원이 되고 회비를 내는 일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일본의 운동가들은 이것을 한결같이 일본의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조직이 시민운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핵운동가인 다카기 진자부로 씨는 “사회의 구조가 또한 한 문제다. 가족, 회사와 같은 집단이 개인을 묶어 버리고, 그 개인들의 행동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Takagi씨 증언, 1992, *Japanese Working for a Better World*).

둘째는 일본의 시민운동이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체 등에서 NGO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시민운동은 속성상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활동가들은 자기 수입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생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적어도 시민운동의 리더들은 운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리는 경우는 없다. 그것은 시민운동은 직업이 아니며, 자원봉사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2 전공투운동에서 소비자운동으로 전개한 운동으로서 구마모토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생사(共生社, Kyuseisha)운동이 있다. 이 운동은 1989년에 탄생한 규슈 지방의 ‘Green Coop’의 모체가 되었다.

때문이다.

셋째, 일본 정부가 시민운동을 육성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모두 세금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민운동단체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시민운동이 법인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억 엔 이상을 자본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할 수가 없다. 최근에는 일본의 우편료 인상으로 시민운동은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넷째, 시민운동이 분산적이고 전국적인 조직을 건설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시민운동간의 협력, 결합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운동가들의 결백증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에 대해 민감하게 나타난다. 물론 전국적으로 XXX네트워크, OOO연락회의 등의 연대행동이 많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강력한 조직체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섯째, 일본에는 시민운동뿐만 아니라, 주민운동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한 운동층의 접근이 상당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운동에 호소하기보다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1960년대 이래 수많은 집단민원 사건들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었고, 그것이 축적된 결과 사람들은 시민운동에 의존하기보다는 사법,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밖에도 일본의 시민운동 가운데 많은 단체가 국제연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력부족, 외국어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출판, 물품의 판매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시민운동의 합리적인 운용방식도 매우 발달하였다. 적은 운영자금으로 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합리화, 절약, 자원의 재활용 등 한정된 운동자원을 합리적으로 조직화하는 경제적인 조직운영법이 일반화되었다.

### 3. 국제화와 일본의 시민운동

일본의 주민운동은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되고 동원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대체로 나리타 공항 건설 반대운동에 대한 연대와 같이 전국적인 쟁점을 둘러싸고 일어나거나 국제적인 문맥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개의 시민운동은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잘 해내고 있는 조직도 많다. ‘베헤렌’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일본의 개입을 반대하고, 일본의 국토를 베트남 전쟁을 위한 후방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대한 시민운동이었다. 말하자면, 일본의 베트남 전쟁 개입이 있는 후에야 시민운동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같이 일본의 시민운동이 국제적인 연대를 추구하고 있는 까닭은 일본의 기업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부당한 경제행위를 하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이 지역의 시민들과

의 연대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1970년대 초 일본의 기업이 보다 값싼 노동력을 구하여 동아시아로 자본진출을 하였을 때,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와 같은 조직이 만들어져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기업활동을 조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산, 高雄(타이완)의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조사를 바로 일본 기업의 해외활동을 시민들이 감시하고자 하였던 노력이었다. 또한 공해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공해수출 문제도 시민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일본이 해외에서 많은 농산물, 원자재, 목재를 수입하게 되어 수출국 민중의 삶을 파괴하게 되자, 일본 국내에서 이러한 농산물, 목재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운동이 많이 생겨났다. 열대 우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시민운동을 비롯하여 필리핀 바나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가를 조사, 연구, 발표하는 시민운동도 활발하였다.

따라서 일본 시민운동의 국제화는 일본 국내경제와 사회가 국제화하고, 또한 일본의 경제, 정치가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Ⅲ. 일본 시민운동의 사례—국제화와 관련하여

일본의 시민운동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1992년의 보고에 의하면 핵문제, 환경파괴, 식품 안전성, 군사화, 교육, 인권 등과 관련된 일본의 풀뿌리 시민운동은 약 1,500개가 있다고 한다. 물론 그 가운데는 주민운동의 속성에 적합한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주로 국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화와 관련된 시민운동의 사례를 들어 일본 시민운동의 경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1.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Pacific-Asian Resource Center: PARC)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는 1973년에 설립되었다. PARC의 중요한 설립자들은 베헤렌 운동과정에 일본의 사정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 영문 뉴스레터 *AMPO*(1969년 창간)를 만든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베헤렌은 처음부터 시민운동 조직으로서 네트워크 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중심인물은 소설가이며 운동가인 오다 마코토(小田實) 씨가 대표를 맡았으며, 그 밖에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모여들었다. PARC의 구성도 오다 씨를 비롯하여, 공공산당에서 활약하였던 사람들, 예술가, 평론가, 국제적인 운동가, 대학교수들이 참여하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정당 배경이 없으며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는 아니었다. 그들은 대부분 동경대학 등 일류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모두 매우 유능하여 국제 감각에 뛰어나다.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영문 잡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능력이 탁월하였기 때문이었다.

설립 당시 아시아의 정세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아시아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한

지배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의 시대로 변하고 있었다. AMPO의 발간과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의 실태조사, 연구. AMPO는 일본의 사회운동을 세계에 소개, 또 당시 보도의 자유를 잃은 아시아의 언론인들의 글을 많이 다루었다. 또한 세계 각지의 민중운동을 일본에 소개하고, 세계의 민중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국내의 운동을 동원하였다. PARC는 대중조직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갖는 막강한 정보력, 분석력 등으로 인하여 여러 시민조직과는 항상 연대를 형성하였다. 활동가들 가운데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독자적인 직업을 갖고 있거나 영문 번역, 학원 강사 등을 통해서 별도의 수입원을 갖고 있었고, 다만 젊은층 가운데 수입원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조직경비는 회비, 출판물의 판매만으로 충당될 수 없었기 때문에 번역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자유학교'와 같은 대안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PARC는 1989년 AMPO 창간 20주년을 기념하여 'People's Plan 21(PP21)'이라는 캠페인을 벌여 국제적으로 전개하였다.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의 민중과 더불어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희망의 연합'을 형성하려는 운동이었다. 일본 전역의 시민운동, 주민운동을 연결하여 농민, 소비자, 여성, 아이누 운동가, 학자-연구자 그리고 오키나와의 기지 반대운동 등 일본 열도를 종단하는 국제회의가 조직되었다. 최후에 규슈의 미나마타에서 해외에서 250명을 맞아들여 총괄회를 가지고 '미나마타 선언'을 채택하였다. 일본 국내 참가자 수는 연인원 11만 명에 달했다.

이 PP21의 일환으로 가나가와 현, 유엔 대학의 후원으로 요코하마에서 국제회의와 시민집회를 개최하였다. 시민집회에서는 정부개발원조(ODA)를 테마로 선정하여 노동조합, 여성, 생협 등 현내의 주요한 민간단체가 참가하였다. 정부의 개발원조를 비판하고, 참가하는 민간단체에 의한 '풀뿌리 원조운동'을 창설할 것을 결의하였다.

PP21 운동은 1992년 태국에서 두번째 캠페인을 개최하고 또 중남미, 남아시아 등에 지역 PP21을 실시하게 되었다. PARC가 제창하고 이끌어 온 PP21 운동은 냉전 후의 오늘날 민중에 의한 가장 중요한 대안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국제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3년 PARC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전후의 정치를 지배한 자민당 정권이 퇴진한 선기가 있었고 동경 선진국 수뇌회의가 열렸다. PARC는 이에 대항하여 'G7을 재판하는 국제 민중법정'을 동경에서 개최하였다. 이것은 냉전 후의 오늘날, '얼굴 없는 지배자'인 IMF, 세계은행이 채무로 고통을 받는 남쪽의 나라들에게 구조조정정책을 강제하여 빈곤, 기아, 인권침해, 환경파괴, 분쟁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해역과 일본 각지에서 13인의 증언자, 국제법학자 등 8인의 토론자로 구성된 이 법정에서는 G7과 국제 금융기관을 겨냥한 고발문을 채택하였다(Kitazawa).

PARC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국내용의 팸플릿 제작, 정책제언의 작성 등 해외와의 접촉점으로 활동하고, 다양한 시민운동의 브레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 2. 반핵정보센터(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일본의 반핵정보센터는 다카기 진자부로 씨에 의해 1975년에 설립되었다. 다카기 씨는 핵화학 연구가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이며, 실제로 핵산업에 연구자로 참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일본 반핵운동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전문가이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반핵운동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권위자이다.<sup>3</sup> 1975년에 다카기 씨 혼자서 반핵정보센터를 설립하였지만 지금은 약 10명의 유급 활동가를 가진 큰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원자력 발전이나 핵무기와 같은 전문영역의 정보와 지식을 대중화시켰다. 일본어로 된 월간 뉴스레터(2종)와 격월간 영문소식지(*Nuke Info Tokyo*)를 발간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 정부나 기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며, ‘편리한’ 전기기구를 시민들에게 대량으로 팔고, 24시간 영업을 확대하고, 도시의 조명을 밝게 하여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반핵정보센터는 핵관련 정보의 전달을 주로 하고 있지만, 전국 반핵운동의 중요한 지원세력이 되고 있다. 1988년에는 동경의 히비야 공원에서 2만 명이 모인 반핵집회가 있었다. 이 때 이 반핵정보센터는 반핵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일본의 반핵운동이 정당정치에 영향을 받아, 분열상을 보이고 있지만, 반핵정보센터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일본의 지역반핵운동과 세계의 반핵운동을 연결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운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내 목적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고, 일본은 아직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이 운동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체르노빌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들은 시민들의 관심을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었다. 우리가 만든 팜플렛 가운데는 10만 부가 팔린 것도 있었다. 이 출판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핵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 3. 생활클럽생협의 국제화: 생활클럽 ‘가나가와(神奈川) 생활협동조합’의 사례

생활클럽생활협동조합(생활클럽생협으로 줄여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은 동경의 세다가야 구의 주부들이 1968년에 생활클럽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생활협동조합은 원래 소비자조합으로서 생활재를 공급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생활클럽생협의 특징은 이것을 ‘반(班)’(5-8가구로 구성)을 통해서 공급하고, 반활동을 통해서 단순히 경제조직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인’ 조직으로서 기능하게 한다. 생활클럽생협의 주요한 활동가는 주부들이며, 그들이 주로 생협에서 운영하는 생산자협동조합에도 참가하고 있다. 가나가와 현의 생활클럽은 1971년에 1,000명의 회원으로 결성되었다. 수송용 차량과 배송 센터, 다른 필요 비용은 조합원들의 회비로 충당되었다. 오늘날 가나가와 생활클럽은 전국의 생활클럽(약 20만 명) 가운데 가장 큰 조직으로서, 69,000명의 회원과 300

3 이 부분은 주로 *People's Voice of Japan*에서 정리, 요약하였음.

역 엔의 자본을 갖고 있다. 지난 23년 간 생활클럽은 재정적으로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생활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발전시켰다. 생활협동조합은 이제 하나의 조직원리로서 석출되어 다양한 협동활동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활동은 생산물의 배분뿐만 아니라 각종 생산자협동조합(workers' collective)을 만들어 생산활동, 사회봉사활동을 확대하여 왔으며 사회복지생협, 정치조직화를 실현하고 있다.<sup>4</sup>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에는 47개의 생산자협동조합, 20종류의 직업, 즉 번역, 비디오 프로덕션, 결혼상담, 제빵, 식당, 도시락집 경영 등의 생산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활동은 경제활동에 틀림없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도시락 사업은 충분하지 않은 영양가와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75%의 이익을 얻고 있다. 그러나 생활클럽의 workers' collective는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60%의 이익을 올리고, 도시락을 만드는 데 자연식품을 사용하고 있다.

생활클럽생협은 식품의 안전성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그래서 그들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식품의 수입을 통해서 세계의 생산자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다. 제3세계의 농민들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여, 중간상인과 다국적 기업의 농간을 배제하고 하여 추진된 민중교역운동 'Alter-Trade'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생활클럽생협 가나가와는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그들의 대표들을 지방의회에 진출시키고 있다. 생활클럽의 정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Kanagawa Network Movement is the Kanagawa(일명 NET)를 조직하여 1991년의 통일지방선거에서 25명을 당선시켰다. 생활자가 스스로의 대리인을 의회에 보낸다는 의미에서 출발, 선거, 의회활동 그리고 입기설정 등을 생활클럽생협이 통제하고 있다. 생활클럽생협의 정치활동은 '생활자, 생활'을 전략적인 개념으로 설정하여 이것을 정치의 장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대리인운동은 (1)일상생활을 정치의 장에 등장시켰으며, (2)생활의 정치화와 정치의 생활화를 실현하고, (3)지역수준에서 대안적인 정치를 실현하며, (4)기존의 생활관계의 변혁을 지향하는 것이다(Muto, 1994).

생활클럽생협은 지금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다. 한국, 중국, 태국 등의 생협과의 연대는 물론이며, 국제적으로 작은 원조기금을 만들기 위해 '지구시민연대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운동은 세계의 사람들의 교류, 물자 교류(국제적인 산지직송), 환경보전, 문화교류, 평화, 참가, 분권 자치운동의 연대를 지향하고 있다.

#### 4. ODA 비판과 풀뿌리 원조운동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는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원조 금액 면에서 세계 1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ODA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4 생활클럽생활협동조합 1991 보고서 참조.



ODA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ODA야말로 남북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 원조로 인해 남쪽의 민중의 삶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ODA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의 일차산품과 원료가 수탈되어 선진국의 산업가와 소비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인도의 Nardama Dam 프로젝트는 일본의 ODA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댐의 건설에 의한 수몰민이 10명에 이르며,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기업이 주로 그것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에도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라질의 아마존 개발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개발원조에 대한 비판은 주로 PARC와 같은 시민조직 이외에도 언론인, 학자 등이 개인적으로 혹은 NGO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ODA의 문제점은 (1)상업주의적 원조 (2)지역사정(지역문화, 자연, 사회)의 무시 (3)비밀주의, 정보 공개의 거부, (4)다국적 원조기구의 요청을 무조건 수용 (5)NGO 역할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이다.<sup>5</sup>

일본 시민운동의 이러한 비판은 ODA의 성격을 어느 정도 바꾸었다. 일본 정부는 원조방침을 정하여 환경, 인권, 여성 등을 중심으로 원조를 실행할 것과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ODA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각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NGO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부터 NGO지원을 위한 소규모 사업예산이 ODA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ODA에 대한 시민운동측의 비판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ODA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가나가와 ODA 구상이 발표되었고, 가나가와 현의 즈시 시에서는 1995년부터 자체 ODA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에서는 시민운동에 의한 풀뿌리 원조운동이 일어났다. 기타자와 요오코(北澤洋子) 씨가 주도하고 있는 '가나가와 People-to-People Aid Movement'는 이러한 풀뿌리 시민원조운동의 전형이다. 앞서 논한 가나가와 생활클럽생협의 '지구시민연대기금'도 시민운동을 통한 해외원조의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원조는 정부의 ODA와는 달리 해외의 NGO에게 직접 원조를 실시하여, 민중의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 4. Alter-Trade 운동

해외의 농민, 노동자 그리고 NGO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국제연대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민중에 의한 경제교류를 시도하고 있는 시민운동도 있다. 1986년에는 몇 개의 시민단체들이 'Japan Committee for Negros Campaign(JCNC)'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필리핀의 네그로 지역의 시민단체들로부터 일본의 시민단체에 원조를 호소하였고,

5 *People's Voice from Japan*, 1992

이에 호응하고자 몇 개의 단체가 모여 의논한 결과 이러한 조직이 생겨났다. 1989년에 생겨난 Alter-Trade Japan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필리핀으로부터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야생의 바나나를 가져와서 일본의 생협 등 소비조합을 통해서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필리핀 농민들의 자조활동을 돕겠다는 것이다. 제3세계의 물품을 일본에 전달하기 위해서 'Alter-Trade Japan' 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었다.

이 운동에는 네 개의 주요한 생활협동조합이 참가하였다. 참가회원 가족수는 약 100만으로 바나나 생산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규모였다. 그러나 운반 도중의 부패와 변질, 정치적 혹은 군사적인 이유로 인한 방해 등으로 일본의 소비자들은 이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였다. Alter-Trade가 만약 단순한 소비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소비자들의 현지방문과 교류, 끊임없는 선전활동 등을 통해서 운동성을 살려 갔기 때문에 생산자-소비자가 서로 신뢰하고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Ohashi, 1994참조). 1993년 현재 Alter-Trade 운동을 통해서 공급되는 바나나는 연간 1,500톤, 바나나를 실제로 구입하는 소비자는 약 70만 회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필리핀 농민들은 자조자립을 위한 5개년계획을 세웠다. 생존을 위한 농업, 교육 및 의료 활동, 생산조합의 통합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심내용이다.

Alter-Trade 운동은 필리핀의 바나나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로부터 새우, 한국의 농민조합으로부터 김치, 에콰도르로부터 커피, 니과라과로부터 가죽제품과 참깨를 수입하고 있다. 그들은 바나나는 alternative trade의 상징이며, 일본의 소비자와 필리핀 농민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라고 생각하고 있다(Ohashi).

## 5. 일본 국내의 외국인 지원운동

1980년대 초 중동전쟁과 이라크에 대한 경제봉쇄 이후, 일본에는 전세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일본은 노동력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불법체제자로서 일본에 남아 있다. 일본 사회의 국제화 동향과 더불어 1980년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개방화가 진행되었다. 정주의 국민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의 기회확대, 연금급여, 취직차별의 완화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이른바 뉴커머(New-Comer)라고 하는 새롭게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에는 외국인의 수가 전국민의 1%이상이라고 추정되며, 동경의 도심, 신주쿠 구에서는 약 6%가 외국인이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이다. 가와사키 시에서도 약 18,000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나 약 9,000명 정도는 한국, 중국의 정주외국인이며 약 9,000명 정도는 남미, 필리핀,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다.

이들에 대한 시민운동 차원의 구조활동은 다양하다. 가와사키 시에서는 의사, 시민운동가 등이 중심이 되어 뉴커머들에게 사적인 의료조합을 구성케 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이 일본말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일본어 교육 등도 있으며, 그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는 상담소도 열어 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국제교류협회'라는 재단을 만들어 외국인들에게 행정, 언어교육, 상담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일본의 시민운동 가운데는 '열대우림을 지키는 회'(Japan Tropical Forest Action Network(JATAN))와 같이 작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들도 있으며, 세계의 식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녹색 지구방위기금'(The Defense of Green Earth Found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조직들은 환경, 인권, 개발과 원조, 평화 등에 관련된 것들이다.

#### IV. 결 론

이상 일본의 시민사회, 시민운동 그리고 국제화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그것의 정신, 태도, 운영방법에서 매우 탁월하다. 그러나 일본의 시민운동은 규모, 영향력 등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구조를 바꾸고 사회의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시민운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 다양성과 국제주의: 우리나라의 경실련이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전국적인 조직은 발달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주제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운동의 성과를 떠나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모여서 운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계 도처의 관심사들이 일본 사회운동의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 (2) 새로운 삶의 양식: 시민운동의 운영에서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강하고, 도덕적 결백성과 명예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운동 참가자들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새로운 생활양식,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다. 회계보고를 명확하게 하는 등 조직운영이 매우 투명하다.
- (3) 네트워크 형 조직: 시민운동은 기존의 기업이나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네트워크 형 조직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은 새로운 질의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집단담게 새로운 조직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 (4) 조직의 경제성: 조직의 영세성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조직운영에 있어 경제성, 합리성을 가능한 한 추구하고 있으며, 조직의 규모에 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 (5) 전문성: 일본의 시민운동은 규모에 비해 '전문성'에서 매우 탁월하다. 모든 활동이 문서화되어 있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정보를 입수·분석·정리하여 그 방면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다. 이 전문성은 반드시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전문성은 아니다. 예컨대 바나나와 새우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등은 학술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민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일본에는 대중운동의 시대는 지나갔다. 노동운동도 전국적인 파업이나 행동통일을 할 수가 없으며, 환경운동, 시민운동도 전국적인 연대와 통일행동을 동원할 수가 없다. 대중적인 시민운동은 일본의 사회적 풍토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시민운동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가?

대부분의 일본 시민운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생협 계통은 새로운 전개를 보이고 있다. Muto 씨는 생활자운동, 특히 생협운동에서 큰 기대를 해보고 있다. 그러나 생협운동의 딜레마도 심각하다. 규모를 키워야 영향력도 생기고, 소비자들에게도 잘 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규모의 성장은 관료주의를 배태시키고 근본주의적인 이념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생협운동을 비롯한 새로운 운동은 1980년대 일본 시민운동에 새로운 전망을 열었고 일본의 운동문화에 새로운 차원을 도입하였다. 특히 생활, 생활자, 생활자주권이라는 개념을 운동이론의 전략으로 개발하여 그것을 정치적 제도의 수준에서 실현하려고 한 노력은 높게 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일본에는 60년대 이래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의 이상을 이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등에는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극단히 적다고 한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한계가 온 것인가?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일본 사회가 앞으로 전개되는 국제화와 개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 일본의 시민운동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北澤洋子(Kitazawa Yoko)

July 1994 「今後のPARCのはたす役割についての一考」『オルタ通信』(Alternatives), アジア太平洋資料センター-(PARC), Tokyo

August 1994 「オルタ通信」('Alternatives'), アジア太平洋資料センター-(PARC), Tokyo  
*Japanese Working for a Better World—Grassroots Voices and Access Guide to the Citizens' Group in Japan*, HONNOKI Inc, 1992

*People's Voice of Japan- I have the earth in mind, The earth has me in hand.* '92NGO FORUM JAPAN.

Ohashi Seiko

1994 *Alternative Trade, Communiqué: IN SEARCH OF ALTERNATIVES*, ARENA (Asian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

Muto Ichiyo

1994 *The alternative livelihood movement, Communiqué: IN SEARCH OF ALTERNATIVES*, ARENA(Asian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s).

日高六郎(Hitaka Rokuro)

1973 「市民と市民運動」岩波講座現代都市政策 II 市民參加

生活クラブ生活協同組合

1991 「90年代 かながわ生活者運動」, 事業の座標—生活クラブ神奈川, 第5次中期計劃 (1991-1995)

座談會

「あたらしい社會運動の四半世紀」をめぐって 『社會運動』, 社會運動研究センター, 月刊 163(1993年 10月號)

이시재, 성심여대 사회학과 교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장미APT B동 102호

Tel : (032)650-3264(O), 794-7071(H)